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 신체이미지,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이승희* · 이시원

Kent State University The Fashion School 부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

Public Self-Consciousness, Body Image, & Socio-Cultural Influence on Gender Differences

Lee, Seung-Hee* · Lee, Si-Weon

Associate Professor, The Fashion School, Kent State University*
Graduat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f there were differences in public self-consciousness, body image, and socio-cultural influ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Six hundred twenty-six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reliability test were us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males, females had higher scores on appearance orientation(AO), appearance evaluation(AE), and weight occupation(WP). Also female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ies such as lower body part or middle body part than males. That is, women had lower body image than men. Second, ther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in self-esteem between males and females. Third, females had higher scores on public-consciousness than males did. Fourth, compared to males, females were more influenced by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Finally, women had more higher scores on appearance behavior management than m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would provide more efficient strategies to reduce negative body image, especially in women.

Key Words : 신체이미지(body image), 공적 자기의식 (public self-consciousness),
성별(gender), 자아존중감(self-esteem), 사회문화적 영향(socio-cultural environment)

I. 서론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외모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외모지상주의 가치의식이 더욱 강력하게 부상되면서 개인의 가치관과 이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다. 외모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모를 통해 자신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Barocas와 Karoly¹⁾에 의하면, 똑같은 상황 하에 동일한 행동을 보일 때,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외모가 덜 매력적인 사람보다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였다. 즉, 외모가 더 매력적인 사람은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더 관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타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는 종종 낮은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외모관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모관리 노력을 통한 긍정적인 외모변화는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갖도록 해준다. 하지만, 최근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강력한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가치관의 서구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미의 기준이 획일화되면서, 이상적인 사회문화적 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도록 한다. 이런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낮은 자아개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체이미지 왜곡행동(예, 섭식장애, 성형 중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Miller et al.²⁾은 공적인 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 높은 사람들이 공적 자기의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런 자기의식의 차이가 신체만족 및 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된 미의

기준을 더 내면화³⁾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Sullivan과 Harnish⁴⁾는 남성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실제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높아 여성의 경우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남성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런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지금까지 외모관리행동이나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⁵⁾⁶⁾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오고 있으며,⁷⁾⁸⁾⁹⁾ 최근에 남성들의 외모관리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¹⁰⁾¹¹⁾¹²⁾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 따로따로 진행되었음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신체이미지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 신체이미지,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 등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의 자료는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고 올바른 신체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과, 이러한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노력이 보다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적 자기의식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회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인상형성, 그리고 자기표현 등을 중시한다. Fenigstein et al.¹³⁾은 이를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기의식이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의 초점을 두는 개인 성향을 의미한다.

Markus¹⁴⁾는 자기의 의미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 외형적 특성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포

함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Rogers¹⁵⁾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아개념과 일관된 행동을 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에 따라 특정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한다. Fenigstein et al.¹⁶⁾은 자기의식의 이론을 토대로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개인의 성향정도에 따라 두개의 자기의식, 즉, 공적 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과 사적 자기인식(Private self-consciousness)으로 구분하였다.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보다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선시 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며 자신을 관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또한, Froming과 Carver¹⁷⁾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Rowold¹⁸⁾의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패션관심 및 유행 동조성 등에 높은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Innes와 Kitto¹⁹⁾도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보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외모에 대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외모관리에 매우 치중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Scheier과 Carver²⁰⁾의 연구에 의하면,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감정 및 의견에 충실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자기 자신의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적 자기의식이 신체만족 및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왔지만, 실제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한 예로 국외 연구인 Lee와 Burns²¹⁾은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높아 의복을 구입하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적인 자기의식이 높은 여대생

은 최신 유행이나 패션 등 전반적으로 외모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있다고 보여진다.

2. 신체이미지와 사회문화적 영향

Cash²²⁾에 의하면, 신체이미지란 개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지향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며, Lewis와 Johnson²³⁾은 신체이미지란 주변의 새로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에 따른 변화도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Cash²⁴⁾는 신체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사회, 문화적 기준으로 결정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신체적 느낌이나 변화에 민감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타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때로는 신체이미지를 왜곡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Ketton과 Brown²⁵⁾은 신체이미지는 지각적 신체이미지와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포함하며, 지각적 신체이미지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느냐에 대한 반응이며, 이는 심각한 자기 우울증, 섭식장애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 혹은 외모에 대해 어떠한 느낌 혹은 평가를 하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행동 등을 보이는 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평가는 자아 존중감을 포함한 자기개념, 의복행동, 그리고 외모관리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한다.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Thompson과 Heinberg²⁶⁾는 타인으로부터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

Lerner²⁷⁾ 또한 신체적인 매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기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며 외모에 대한 신체이미지가 자아 존중감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신체이미지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즉 현대인

들은 매스미디어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외모의 관심과 인식을 하게 된다. 그 예로 한미 여대생을 비교로 조사한 Lee와 Nam²⁸⁾의 연구결과,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여대생들이 미국 여대생들에 비해 신체 이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성이 실제로 비만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대생은 스스로 자신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편인 반면, 한국여대생은 반대로 인지하는 성향이 높았다. 또한, 각 나라마다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문화, 국가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이상적 미의 기준이 동일하다고 두 집단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 인식은 신체 외모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상적 미의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상적 미의 기준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과도한 성형수술 및 체중조절 행동, 더 나아가 섭식장애 등 부정적인 외모관련행동들을 보이게 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두드러지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마르고 날씬한 신체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이는 여성들에게 압력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매스미디어의 영향 및 여성은 마른체형이 미의 기준이라는 현대의식이 보편화되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되며, 여러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면서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이미지, 공적 자기의식,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 차이를 조사한다.

연구문제2)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을 조사한다.

연구문제3)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이를 조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경기지역 등의 20, 30대 성인 남, 녀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0대와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조사한 이유는 이 연령층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되며, 이로 인한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신체이미지,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영향, 자아 존중감, 외모관리행동,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모두 7점 Likert 척도였으며, Rosenberg²⁹⁾의 자아 존중감 10문항, Feinigstein et al.³⁰⁾의 공적 자기의식 14문항, Cash³¹⁾의 MBSRQ 신체이미지 30문항, Heinberg와 Thompson³²⁾의 SATAQ 8문항, 그리고 Lennon과 Rudd³³⁾의 외모관리행동 10문항을 사용하였다. Cash³⁴⁾의 MBSRQ 측정도구에는 외모지향성(AO: Appearance Orientation), 외모평가(AE: Appearance Evaluation), 몸무게집착(WP: Weight Preoccupation), 그리고 신체만족도(BS: Body Satisfaction)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Heinberg와 Thompson의 SATAQ 문항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수용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지'(awareness)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측정도구들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각 요인들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요인들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요인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내적일치성을 분석해 본 결과, 모든 문항들의 Cronbach Alpha 값이 0.75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보였다. 이외 인구통계학의 문항으로는 연령, 성별, 신장과 체중, 최

종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등이 포함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t-test, 신뢰도검증(Cronbach Alpha) 등을 실시하였다.

외모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한달 평균 비용은 20만원 미만은 389명(62.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40만원 미만 121명(19.33%), 5만원 미만 95명(15.18%), 60만원 미만 16명(2.55%), 100만원 이상 5명(0.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각 변인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변수별 각 변수별 차이

1)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성별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신체이미지의 하위영역인 4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4 변인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 평가에 민감하였으며, 몸무게 변화에도 민감하여 몸무게 집착성향이 높았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Cash³⁵⁾의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더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남성은 자신의 몸무게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몸무게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므로 남성보다 여성이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하며 자신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인값의 평균

본 연구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응답자는 333명(53.19%), 30대의 응답자는 293명(46.81%)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293명(46.81%), 여성이 333명(5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이 202명(3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128명(20.45%), 관리직 43명(6.86%), 전문직 118명(18.85%), 주부 67명(10.70%), 서비스직 14명(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은 408명(65.18%), 고졸 94명(15.02%), 대학원졸 67명(10.70%) 등의 순이었다.

<표 1> 각 변인별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설문문항 범위	
				최소	최대
신체 이미지	AO (외모지향성)	4.64	9.31	12	84
	AE (외모평가)	4.02	4.72	7	49
	WP (몸무게집착)	4.13	2.57	2	14
	BS (신체만족도)	3.80	8.45	9	63
자아 존중감		4.50	7.52	10	70
공적 자기의식		4.18	10.71	14	98
사회 문화적 영향	미디어기준의 내면화	4.04	5.86	8	49
	외모중요성 인지	4.82	3.67	4	28
	외모 관리행동	3.36	7.63	10	64

<표 2>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차이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신체 이미지	AO (외모지향성)	남성	4.06	0.73	-6.461***	
		여성	4.45			0.77
	AE (외모평가)	남성	3.88	0.64		-5.002***
		여성	4.15	0.68		
	WP (몸무게집착)	남성	3.78	1.21		-6.677***
		여성	4.44	1.26		
	BS (신체만족도)	남성	3.97	0.86		4.419***
		여성	3.64	0.98		
자아 존중감		남성	4.59	0.73	1.494	
		여성	4.50	0.77		

*** $p < 0.001$

<표 3> 성별에 따른 각 신체만족도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신체부위별 만족도	얼굴	남성	4.26	1.37	1.399
		여성	4.10	1.53	
	헤어	남성	3.95	1.48	-1.203
		여성	4.09	1.57	
	하체	남성	4.05	1.40	9.048***
		여성	2.97	1.57	
	중간부위 (허리,배)	남성	3.53	1.40	3.362**
		여성	3.14	1.49	
	상체	남성	4.03	1.30	4.585***
		여성	3.51	1.51	
	몸매	남성	4.08	1.35	3.651***
		여성	3.66	1.53	
	몸무게	남성	3.73	1.37	2.303*
		여성	3.46	1.56	
	키	남성	3.81	1.54	0.394
		여성	3.76	1.77	
	전체외모	남성	4.28	1.19	1.935
		여성	4.09	1.26	

* $p < 0.05$, ** $p < 0.01$, *** $p < 0.001$

의 몸무게에 대한 집착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국내 연구인 박우미³⁶⁾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마른체형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사회적으로 조성화 되어 비만이 아닌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만족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자

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각 신체부위별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9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들은 자신의 하체에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다

음이 허리와 배와 같은 중간 부위, 몸무게, 상체, 몸매 등의 순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신체에 대해 비판적이며 신체의 특정부위에 불만족한다는 Franzoi와 Stephanie³⁷⁾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에 관해 조사한 국내연구³⁸⁾에서 한국 여대생들보다 미국 여대생이 전반적으로 신체가 더 굵고 크고 몸무게도 무거웠지만,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신체에 대해 훨씬 더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여대생은 허벅지, 힙, 몸무게 키, 배등의 순으로 불만족을 높게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의 하체, 중간 부위(허리, 배), 상체, 몸매, 몸무게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 공적 자기의식

공적 자기의식에 따른 남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 여성이 남성보다 공적인 자기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기의식이 높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 그리고 외모행동 등이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의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이미지나 외모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3) 사회문화적 영향

<표 5>와 같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 영향의 두 하위영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높았으며,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높게 인지하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외모관리행동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비교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의 점수가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측되었던 대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표 4>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공적 자기의식	남성	4.13	0.78	-2.59*
	여성	4.37	0.76	

*p<0.01

<표 5>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차이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사회 문화적 영향	미디어기준의 내면화	남성	3.87	0.75	-5.318***
		여성	4.21	0.87	
	외모 중요성 인지	남성	4.63	0.83	-4.915***
		여성	4.99	0.96	

***p<0.001

<표 6>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외모관리행동	남성	3.53	0.75	-7.200***
	여성	3.96	0.72	

***p<0.001

여성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등의 자신에 대한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들의 외모가 오늘날 하나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여성들의 외모는 관리되고 만들어져 가고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점차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모관리 행동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몸무게변화에 민감하며,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각 신체별부위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신체부위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들은 자신의 하체에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허리와 배와 같은 중간 부위, 몸무게, 상체, 몸매 등의 순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적 자기의식에 따른 남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공적인 자기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 영향의 두 하위영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높았으며,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높게 인지하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보다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의식하는 공적 자기의식이 높으며, 신체만족도를 포함한 신체이미지가 낮으며,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미의 기준이 서구화 되어가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가 추구하는 미에 대해 선호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자아 존중감이 상실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현대인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 성장과정에도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TV나 잡지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이상적 미의 기준을 더욱 내면화시킴으로써, 도달하지 못하는 미의 기준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는 동시에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른체형을 이상적으로 보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고 나아가 자아존중감 상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무리한 성형수술 등의 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에 쉽게 노출되는 여성들은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긍정적 신체이미지와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신체이미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가 성장하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 꾸준한 외모관리 행동의 노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올바른 신체 이미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대와 30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우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연령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간의 관계보다는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분석에 주 초점을 두었

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공적 자기의식에 따른 신체 이미지 등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또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 조사 혹은 BMI 집단에 따른 신체 이미지 차이 등을 조사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모두 외국 의 측정도구를 번역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다 더 적합하고 합리적인 신체이미지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Barocas, R., Karoly, P.(1972), "Effect of physical appearance on social respons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31, pp.495-500,
- 2) Miller, F. Davis, Rowold, L. (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0, pp.363-368.
- 3) Richins, M.(1991), "Social comparison and the idealized images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pp.71-83,
- 4) Sullivan, L., Harnish, R.(1990), "Body image: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self-monitoring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4, pp.291-302.
- 5) Cash, T., Thompson, J. (1992),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6) Secored, P., Jouard, S. (1953), "The appraisal body cathexis ;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pp. 343-347.
- 7) 김완석·김해진 (2005), "여성의 신체이미지 지각 이 신체관련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6(3), p.28.
- 8) 서화숙·송정화(2006),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조고,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pp. 332-341.
- 9) 이정순·한경희(2008),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2(2), pp. 153-164.
- 10) 이윤정(2007),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성역할 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4), pp. 551-562.
- 11) 류은정(2008), "남대대학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동기", *대한가정학회지*, 46(1), pp. 63-72.
- 12) 홍금희(2008), "남자 대학생의 대중매체노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2(7), pp. 1149-1159.
- 13) Fenigstein, A., Scheier, M., Buss, A. (199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43, pp. 522-527.
- 14) Markus, H.,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pp.299-337.
- 15) Rogers, C. R. (1965), Some Observ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2, pp. 358-368.
- 16) Fenigstein et al., op. cit., pp. 522-527.
- 17) Froming, W. J. & Carver, C.(1981), "Divergent influence of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 a compliance paradigm", *Journal of the Research in Personality*, 158, pp. 159-171.
- 18) Rowold, K. L. (1995), "Dress and Human Behavior Research: Sampling Subjects and

- Consequences for Statist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4), pp. 262-272.
- 19) Innes, J. M., Kitto, S. (1988), "Neuroticism, self-consciousness and coping strategies and occupational stress in high school teachers",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 10, pp. 303-312.
- 20) Scheier, M. F., Carver, C. S. (1977),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Attraction, repulsion, el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pp. 625-636.
- 21) Lee, M., Burns, L. D. (1993), "Self-consciousness and clothing purchase criteria of Korea and United State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1(4), pp. 32-40.
- 22)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pp. 125-130.
- 23) Lewis, L. & Johnson, K. (1989), "Effect of dress, cosmetics, sex of subject, and casu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1), pp. 22-27.
- 24) Cash, op. cit., pp. 125-130.
- 25) Ketton, W. P., Sash, T. F., & Brown, T. A. (1990), "Body image or body image? 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54(2), pp. 213-320.
- 26) Thompson, J., & Heinberg, L. (1999), "The media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Social Issues*, 55, pp. 339-353.
- 27) Lerner, R. (1987), "A life-span perspective for early adolescence", In Lerner & Foch(Eds). *Biological-psychological interactions in early adolescence*, Hillsdale, NJ : Erlbaum.
- 28) Lee, S. & Nam, Y. (1999),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body image and clothing selection behavior among Korean and American women", *International Textiles & Apparel Association Proceeding*.
- 29) Rosenberg, M. (1965), "*Measurement of self-esteem*. In M Rosenberg (Ed.),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p. 297-307,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0) Fenigstein et al., op. cit., pp. 522-527.
- 31) Cash, op. cit., pp. 125-130.
- 32) Heinberg, L., & Thompson, J.(1992), "Social comparison: Gender, target importance ratings related to body image disturbanc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 pp. 335-344.
- 33) Lennon, S., & Rudd, R. (1994).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 pp. 84-117.
- 34) Cash, op. cit., pp. 125-130.
- 35) Cash, op. cit., pp. 125-130.
- 36)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5), pp. 29-39.
- 37) Franzoi, S., Stephanie, A.(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48(2), pp. 173-178.
- 38) 남윤자-이승희(2000),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4(4), pp. 764-772.
-
- 접수일(2009년 4월 27일)
수정일(1차 : 2009년 5월 21일, 2차 : 6월 10일)
게재확정일(2009년 6월 15일)